

# 현대불어의 시상체계 연구\*

원 유 상  
(원광대학교)

Won, Yoosang.1997. A Study on Aspect System in Modern French. *Linguistics*, 5-1, 169-184.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apprehend the process of determination of aspect and its function in modern French. As the relationships between aspect and tense could not be rigorously distinguished by traditional grammatical terminology, aspectual value was restricted to one or more tenses. It appears, however, that aspect is, as an independent category from tense, even more complicated grammatical category than tense, because aspectual meaning is related to not only tense but also to other parameters. We proposed a semantic feature, opposition [+limited] and [-limited], which could be applied to aspectual value of phrase as well as the situation referred by verb. (Wonkwang University)

## 1. 머릿말

시상(aspect)개념에 관련된 포괄적 문제 중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은 시제(temps)와의 관계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상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무엇일지를 밝히는 일이다. 그리고 시상의 기능이 무엇일지를 밝혀내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접근하기 위하여 여러 언어학자들이 제시한 시상의 분류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들의 분류들을 소개하고 비판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시상의 문제들을 거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시제와 시상이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이 두 문법범주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흔히 시제는 언술행위의 대상인 사건을 시간축상에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즉 시제는 연대기적인 시간축상에 현재의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시, 과거, 미래로 사건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반면 시상은 언어외적 사건을 재현하는 언어적 시간의 내부구성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것은, 사행(procès)이 점유할 수 있는 시간거리의 어느 위치에 화자의 관점이 놓이는지에 따라 시상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

\* 이 논문은 '96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불어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중, 예컨대 단순과거나 반과거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언뜻 보아 이 두 시제는 모두 과거의 사실을 언어적으로 재현-또는 발화-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두 시제가 공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흔히 알려진 대로 단순과거는 기동상(inchoatif)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사건 전체를 드러내는 총체적 시상(perfectif)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능한다. 반면 반과거의 경우 사건의 한 순간에 화자의 관점이 위치하여 사건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의 예가 이러한 대조관계를 잘 보여준다.

- (1) Le prisonnier parla
- (2) Le prisonnier parlait

(1)은, 'Le prisonnier se mit à parler'의 의미를 갖는 반면, (2)는 'Le prisonnier était en train de parler'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은 독립적인 발화체의 지위를 갖지만 (2)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차이로 미루어 볼때 시제와 시상의 관계는 적어도 한 발화체내에서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문법범주이면서 또 그 기능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사건을 위치시켜 주는 것이라는 진술을 우리가 수용한다 하여도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된 시제들의 차이를 드러내 주는 것은 시상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정이 이렇어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시제와 시상의 이러한 차이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 예는 아래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자.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상에 관련한 문제 중 하나는 시상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보는 것이다. 발화작용이 일어날 때에 동사의 활용을 통해 뚜렷한 형태소(morphème)의 도움으로 그 지위(statut)가 결정되는 시제와는 달리 시상은 이를 나타내주는 고유한 형태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제와 달리 시상은 발화체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적인 위상을 밝혀야만 드러날 수 있는 의미론적(sémantique)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그 자체는 시상을 특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같은 시제로 쓰인 발화체라 할지라도 시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다음 예가 이를 보여준다.

(3) Paul est sorti

(4) Paul a marché

흔히 (3)은 완료와 결과를 나타내는 시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즉 동사 'sortir'는 시제인 복합과거로서 완료를 나타내면서 또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Paul'의 공간적 이동-내부에서 외부로-이 결과로 남는 것이다. 반면 (4)의 발화체는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 (3)의 경우와 같은 어느 상태의 변화가 함의되지 않는다. 이것은 언어논리적으로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동사가 시상의 특성에 변화를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사를 그 시간 특성에 따라 분류하려는 시도 역시 의미있는 작업이라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 역시 아래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시상의 기능이 무엇인지 밝혀보려는 노력은 시상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능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의미작용에 관여하는 모든 언어범주와의 관계가 다 드러난 후에라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시상의 개념을 차용하여 시제를 설명한다. 즉 시제의 용법(emploi)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예를 들면, 반과거의 용법이라고 하는 반복, 진행 등이 사실은 시상의 특성인 것이다. 물론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완료라는 개념이 시상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시상의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즉 완료나 진행 또는 반복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의미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화자는 왜 그런 종류의 시상을 사용하는 것인지가 우리의 관심사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문제제기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절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 2. 문법에서의 시상개념 취급

우리는 이제부터 문법에서 시상이 어떻게 다루어 지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 시상과 시제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앙리 보나르(Henri Bonnard)는 그의 문법서에서 시제와 시상을 각기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시제는 '시간속에 산입된 사행으로서 지속과 일자(le procès inscrit dans le temps: durée et date)'<sup>3</sup>이다. 사행이란 언어외적 사건이 언어로 표현된 것

3. H.Bonnard(1982),p.216.

이다. 즉 동사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心象的 이미지가 사행인데 이 사행이 시간축에 자리매김된 것을 시제라고 부른다. 물론 여기에서 시간축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언어행위를 하는 화자의 심리적 시간개념이다. 동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개념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시간길이는 갖는다. 이 길이와 그 위치가 시제의 특성을 이룬다. 길이와 위치는 발화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화자의 발화시를 기준으로 이전과 동시, 그리고 이후로 자리하여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는 것이 시제인 것이다.

시상은 이와 달리 ‘사행의 질서(l'ordre de procès)’<sup>4</sup>라 한다. 발화시를 중심으로 위치가 결정되는 시제와 달리 시상은 사행의 위상 또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보나르는 시상을 인식함에 있어 동사의 시간특성을 주된 변수로 제시한다. 아래의 예를 보기로 하자.

(5) Pendant une heure, il a dormi

(6) Pendant une heure, il a demandé à boire

(5)의 시상은 ‘지속적’인 것이다. (6)은 ‘반복적’이다. 두 예문은 형태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차이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서 찾아볼 수 밖에 없다. 그 어휘적 의미가 바로 동사의 시간특성일 것이다. (5)의 경우 동사는 비한정적(non limité)인 것이다. (6)은 한정적(limité)인 의미를 내포한다. 한정적인 것과 비한정적인 기준은 의미론적인 경계, 즉 의미론적인 문턱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의미론적인 경계는 사행이 이론적으로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일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사행이 이론적으로 무한히 지속할 수 없는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미론적인 경계를 갖는 것이 된다.

이런 시간특성들이 ‘한 시간동안’이라는 상황보어과 결합될 때 그 사행의 양상이 달라질 것인데 이 상황보어가 바로 위의 예문들의 시상결정의 주된 변수이다.

그런데 (6)의 예문에 다른 상황보어가 쓰이면 시상이 달라진다.

(7) A deux heures, il a demandé à boire

이 예문의 시상은 ‘일회적(semelfactif)’인 것이다. 여기에서의 상황보어는

지속이 아닌 일자(date)를 나타낸다. 더구나 그 일자(日)는 순간을 표시한다. 순간을 나타내는 상황보어와 제한적 의미의 동사가 결합되었을 경우 그 시상이 순간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렇게 하여 보나르는 시상을 지속상(continuatif), 반복상(itératif), 일회상(semelfacif)으로 분류한다<sup>5</sup>. 이 시상은 문장(phrase)의 시상이다. 그리고 이 시상들은 동사의 사행의 특성인 한정과 비한정이 시제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보나르의 작업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시상을 결정짓는 주 요소로 동사의 시간특성을 들었다. 둘째, 시상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로 상황보어와 조동사들을 예시하였다.

그런데 그가 불어시제의 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시상을 자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주된 시상의 요소로 그는 동사의 특성을 든다. 즉 시간특성이 서로 다른 동사는 비록 동일한 시제형태소와 결합했다 할지라도 시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제의 용법도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가 드는 예를 인용하기로 하자.

(8) La neige tombe

(9) Le facteur passe tous les deux jours

보나르의 설명에 의하면, (8)에서 동사는 비한정(non limité)적 의미 또는 지속의미(sens continu)를 갖는 것으로, 이때 현재시제는 분할(sécant)<sup>6</sup>의 모습을 나타낸다. 또 (9)에서처럼 한정(limité)의 특성을 갖는 동사가 현재로 쓰이면 반복(itératif)을 나타낸다<sup>7</sup>.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동사의 시간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동일한 시간특성을 갖는 동사가 어느 시제로 쓰이느냐에 따라 문장이 표상하는 바가 달라진다.

(10) Jeanne partit quand Paul arriva

(11) Jeanne partait quand Paul arriva

5. 이외에도 보나르는 시상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용례에 따라 근접미래(imminent, ultérieur), 기동(inchoatif, ingressif), 지속(duraif, sécant), 완결(terminatif), 근접과거(récent, antérieur proche), 완료(accomplí, antérieur indéfini)등을 제시한다. Bonnard(1982), p.218.

6. 여기에서의 분할(sécant)은, 보나르가 3 가지로 구분하였던 시상 중 지속상(continuatif)과 다르지 않다.

7. 물론 'tous les deux jours'라는 상황보어가 없다면 반복의 시상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10)에서 '잔느는 떠났다'로 문장의 의미치가 드러나지만 (11)에서는 '그녀가 떠났는지의 여부'가 말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문장의 시간특성은 과연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는 동사의 어휘적 특성, 문법적인 성격의 시제, 그리고 상황보어에 의해 문장의 시간특성은 결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 요소는 사실상 발화시 필수적 요소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불어에서 동사가 문장에 쓰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활용(conjugaison)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랑그의 체계로 볼때 동사는 어휘부에 속하는 것이고 시제의 형태소는 문법 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어휘와 문법요소가 문장의 시간특성을 결정짓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상은 동사와 시제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문을 대할 경우 그 차이는 무엇인지에 우리의 의문은 또 다시 제기된다.

(12) A 15 ans, il fuma

(13) Il fumait si souvent

보나르에 의하면 위의 두 예문은 모두 반복상을 나타낸다<sup>8</sup>. 시제가 다르고 상황보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쓰인 동사도 동일하다. 그런데 왜 반복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또 그 반복상은 동일한 성격의 반복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시제와 시상의 차이를 구별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상을 보나르보다 더욱 세분하여 제시하는 다른 언어학자의 작업성과를 살펴면서 우리의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한다.

### 3. 시상분류의 실제 및 비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사의 시간특성은 시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동사의 시간특성에 따라 동사를 분류한 작업이 벤들리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우선 벤들리의 분류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어서 문장이 생산되는

8. 이외에 단순과거로 쓰인 문장에서 반복상이 나타나는 예를 보나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il fuma pendant 10 jours 2. il fuma jusqu'à 25 ans 이에 앞서 보나르는 지속적(비 한정적) 시간특성의 동사가 단순과거로 쓰였을때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A minuit, il dormit 2. il dormit douze heures 3. il dormit jusqu'à midi. 이런 방식의 대조가 본문의 예문 (8), (9)에도 개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정에서 시상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성찰한 빌메의 작업을 보기로 한다.

### 3.1 벤들러의 동사분류

벤들러(Zenon Vendler)는 동사를 시간표상이라는 개념하에서 4개의 부류로 구분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동사는 아래의 4개의 부류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sup>9</sup>.

1. 상태동사(état)
2. 행위동사(activité)
3. 종결지향동사(accomplishment)
4. 종결동사(achievement)

이 분류는 통사적-의미론적인 테스트를 거쳐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 분류에 의해 어느 한 부류에 속하는 동사가 실제 문장에 쓰이게 되면 전반적인 시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하여 보자.

(14) Paul écrivait

(15) Paul écrivait une lettre

두 문장은 모두 지속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동사의 시간특성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즉 (14)는 행위동사인 반면 (15)의 동사는 목적보어와 더불어 종결지향동사인 것으로 이해된다. 후자는 의미론적인 문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위 두 문장을 각기 복합과거로 치환하여 보면 그 차이는 명백해 진다.

(14)' Paul a écrit

(15)' Paul a écrit une lettre

(14)에 대하여 (14)'는 어느 때나 참(vrai)인 반면 (15)에 대하여 (15)'가 항상 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5)에는 넘어서야 할 의미론적 문턱이 내재하고 있어 이 문턱을 넘어선 시기 이후에나 명제 (15)'는 참인

---

9. 본 논문에서는 회펠만과 로레(1978)가 정리한 벤들러(1967)의 분류를 인용한 것을 그들의 논문으로부터 재인용하기로 한다.

것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볼때 같은 부류에 속하는 동사라 할지라도 문장에서  
의 시상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그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은 목적보어의 유무이다.

또한 흥미로운 현상은 목적어의 유무 뿐만이 아니라 보어의 특성에 따라  
시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sup>10</sup>.

(16) Jean a joué du piano

(17) Jean a joué une sonate

이런 현상에 대하여 회펠만과 로레는 동사 'jouer'는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16)은 행위동사(activité)로, (17)은 종결지향  
동사(accomplishment)로 분류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사의 시간특성에 결  
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는 동사구(syntagme verbal)를 이루는 명사구의  
특성이다. 명사구가 겪을 수 있는 가능한 변화에 따라 동사구의 시상특성  
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가능한 변화는 동사와 명사구와의 관계에서  
비롯한다.

벤들러의 동사분류는 시간특성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통사적인 관점  
에서 보면 동사가 문장에서 쓰이게 되면 동사구(syntagme verbal)를 구성  
하게 된다. 이 동사구의 시간특성과 원래의 동사의 시간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사실을 시사한다. 즉 동사가 활용변화되어  
문장에 쓰이게 될때 동사구를 구성하는 명사구의 유무 혹은 그 명사구와  
동사와의 관계로부터 문장의 시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결론과 앞서 보나르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얻었던 결론을 중  
합하면, 시상은 동사의 시간특성과 시제, 그리고 동사구의 특성 및 상황보  
어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이제부터는 시상을 결정하는 언어층위에 따라 시상을 구분하여 체계를  
세우고 있는 마르크 빌메(Marc Wilmet)의 분류를 살펴보기로 하자.

### 3.2 빌메의 시상분류

빌메는 시상을 3 개의 층위로 나누어 고려한다<sup>11</sup>. 문법시상, 의미시상 그  
리고 어휘시상이 바로 그것이다.

10. 회펠만과 로레(1978),p.120, 각주 4를 인용함.

11. Marc Wilmet,(1978),pp.51- 68.

우선 문법시상은 동사가 취할 수 있는 시제의 체계에 따라 *global, sécant, extensif, perspectif, incident*으로 분류된다. 이 부류의 시상은 동사가 형태소와 결합하여 갖게 되는 단순시제, 시제조동사와 결합하여 변화되는 복합시제 및 진행, 근접미래 등의 시제가 가질 수 있는 시상을 망라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된 시상은 어느 시제에 대하여 한가지 항목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시제가 복합적일 경우(복합시제뿐만 아니라 진행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시상의 항목은 중복되어 나타난다. 몇개의 예를 보기로 하자. (시제형태, 시상, 시제의 순서대로 기입한다)

sut ----- global ----- passé  
 sait ----- sécant ----- présent  
 saura ----- global ----- futur  
 savait ----- sécant ----- passé

이 분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시제는 달라도 시상은 동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단순시제와는 달리 복합시제(조동사+과거분사, 조동사+부정법을 포함한)는 시상이 복합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 역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t su ----- global extensif ----- passé antérieur  
 a su ----- sécant extensif ----- présent antérieur  
 aura su ----- global extensif ----- futur antérieur  
 avait su ----- sécant extensif ----- passé antérieur

va savoir ---- sécant perspectif ----- présent perspectif  
 allait savoir ---sécant perspectif ----- passé ultérieur

être en train de chanter --- global incident -- inaccompli simultané  
 est en train de chanter --- sécant incident --- présent simultané

이 분류에 의해 시제를 시상에 의해 대략적으로 구분하면, 분할시상(*sécant*)과 총체시상(*global*)로 구분된다. 특히 직설법의 시제가 그러하다.

다시 빌메가 제시하는 의미시상을 보기로 하자. 그는 거의 벨들러와 유사한 분류를 내놓았는데 이 의미시상은 동사자체의 시간특성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빌메는 동사를 1.정태동사(*statif*), 2.미완동사(*imperfectif*), 3.완결동사(*perfectif*), 4.종결동사(*conclusif*)로 구분한다<sup>12</sup>. 그리고 이런 분류의 근

거로써 빌메는 언어논리적인 테스트를 제시한다. 언어논리적인 테스트란 주어진 문장에 대해 어떤 추론(inférence)이 가능한지, 또는 이 문장이 함의를 유도하는지에 의한 것이다. 추론의 기준은 동사에 의미적인 문턱이 있는지, 이론적으로 무한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다.

또한 어휘적(lexical) 요소의 도움을 받아 시상이 정해진다는 생각에서 빌메는 3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첫째로, 조동사적인 요소들에 의한 것, 둘째로, 부사들에 의한 유형, 그리고 세번째로, 접사에 의한 시상의 미묘한 뉘앙스를 그의 체계로 산입한다. 이렇게 하여 그가 분류한 시상은 13개에 이른다.

문장은 관점에 따라 시상의 층위가 달라지고 또 그 층위에 따라 구체적인 시상이 드러난다. 다음의 문장을 각기 층위에 따라 시상을 세분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sup>13</sup>.

(18) *il commence à m'énerver* :

문법시상 : 산입 분할상

의미시상 : 미완료

어휘시상 : 기동

이 3 가지 층위의 시상이 항상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문법시상과 의미시상은 언제나 나타나는 것인 반면 어휘시상은 화자의 선택에 의한 수의적(facultatif)인 것이다.

#### 4. 시상의 기능에 관한 고찰

우리는 이제까지 세 언어학자의 시상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주장을 서로 비교해보고 공통적인 사항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논지는 시상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첫째로, 보나르(Bonnard)가 동사를 시상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가정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바로 벤들러(Vendler)의 동사분류와 빌메(Wilmet)의 의미시상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벤들러와 빌메의 분류는 4개의 부류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보나르는 이를 압축하여 2개로 구분하고 있다. 즉 의미론적인 경계의 유무에 의해 한정(limité)과

12. M.Wilmet, pp.61-63.

13. M.Wilmet, pp.64-65의 예문과 시상해석을 그대로 인용함.

비한정(non limité)의 대립으로 동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상태동사와 행위동사, 또는 정태동사와 미완동사는 비한정적인 시간특성을 갖고 있으며, 종결지향동사와 종결동사 혹은 완결동사 등은 한정적인 시간특성을 갖는 동사이다. 보나르의 이러한 관점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코베트(Co Vet)는 동사가 지시하는 상황을 전이적(transitionnel)인 것과 비전이(non transitionnel)인 것으로 보아 문장의 의미치를 규정하는 작업을 한 바 있다<sup>14</sup>.

둘째로, 보나르는 시상을 결정짓는 요소로 시제를 강력하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대신 상황보어가 동일한 시제로 구성된 문장의 시상에 변화를 주는 요소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언급을 안했을 뿐이지 보나르는 시제에 사행의 양상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었다. 앞서의 예문 (12)의 경우 반복이면서 사행의 초기과정이 나타난다고 언급한 대목등에서 이런 짐작이 가능하다.

반면 빌메는 문법시상이라는 항목으로 시제가 사행의 시간성을 결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단지 구체적 예에서 두 사람의 분석은 달랐다.

이러한 결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관점을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시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시상의 결정요소들에 대한 형식언어적 방법론의 도입이고 또 하나는 시상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일이다.

첫째,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형식언어적인 방법은, 동사를 형식언어의 어휘부(vocabulaire)로 간주하고 동사가 현동화되는 과정-즉 시제로 쓰이게 되는 경우-을 통사부(syntaxe)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동사는 정형(constant)으로, 시제는 술어(prédictat)로 고려한다. 그리하여 문장에 쓰인 동사는 IMP(v), PC(v), PS(v)의 적형식이 되는 것이다. 시상에 영향을 주는 상황보어 등은 위의 적형식에 대한 또 다른 상위 술어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동사와 시제는 개념의 단계에 속하는 요소인데 동사가 활용되는 과정을 일종의 한정작용의 단계로 고려할 수 있다. 세계에 대한 인식이 동사와 시제에 의해 문장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론은 보나르와 빌메의 논지를 형식적으로 잘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우리가 제기하였던 의문점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여 보기로 하자. 문제된 예문은 다음의 것이었다.(편의상 번호를 다시 씀)

14. Co Vet(1980)

(19) A 15 ans, il fuma

(20) Il fumait si souvent

(19)를 형식화하면, PC(f)로 된다. 동사 *fumer*는 한정적인 시상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fumer une cigarette*'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형식 PC(f)는 '*se mit à fumer*'를 의미할 것인데, 이런 의미는 필연적으로 모호성을 띠게 된다. 즉 일회적인 행위인지 아닌지가 애매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술어인 상황보어가 기능하게 된다. 즉 '*à 15 ans*'이 바로 그것으로서 가능한 의미 중 일회적인 것을 배제하고 습관적인 행위를 의미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상황보어 '*à une heure*'가 쓰인다면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즉 일회상이 될 것이다.

빌메는 단순과거라는 시제의 문법시상으로 총체상(global)을 제시한 바 있다. 총체상은 시작점에서 종결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전반적이고 개괄적이며 다른 사행이 끼어들기 어려운 상태의 사행을 지시한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면, 위에서 우리가 형식화한 작업이 '사행의 시작을 나타내며 반복적인 사행'을 지시하는 것임은 명백해 진다.

반과거로 된 문장이 반복상을 나타내는 (20)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IMP(f)의 적형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술어인 'IMP'의 시상은 분할상(sécant)이다. 그 자체로는 반복을 생산해낼 수가 없다. 여기에 또 다른 상위술어인 '*si souvent*'이 연산자로 작용하여 이 적형식의 시상을 반복적인 것으로 해 준다. 이 반복은 (19)의 반복과는 다르다. (19)가 사행의 초기를 지시하면서 반복을 나타내는 것인 반면 (20)은 초기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반복만을 나타낸다. 즉 반복되는 행위를 어느 과거순간에서 관찰한 분할인 것이다.

이런 작업은, 발화행위의 과정으로 인식하려는 태도와도 유사하다. 즉 발화체는 랑그라는 언어부(composant linguistique)와 상황이 고려되는 수사부(composant rhétorique)의 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우리가 위에서 제시한 적형식의 도출은 언어부의 영역에 속한다. 이 언어부는 어휘와 통사규칙들로 구성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언어부는 개념단계에 속하는 동사와 시제가 한정단계에 도달한 상태와 유사하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영역을 거쳐 발생한 발화체에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실게 된다. 문장은 발화상황에 위치하여 화자의 논증이라는 언어행위를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두번째 문제를 제기해보자. 이것은 시상의 기능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화자는 시상을 이용하여 무엇을 하려 하는지, 자신의 언어행위에 시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보나르는 동사를 한정적인 것과 비한정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동사들이 각 시제와 쓰였을때 드러나는 시상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코베트는 이보다 더욱 세련된 방법으로, 한정과 비한정을 전이적인 상황과 비전이적 상황과 연결시켜 그 의미를 규명한 바 있다고 우리는 지적하였다. 코베트의 전이-비전이 상황의 대립은 완료시제의 경우 그 결과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이었다. 이 경우 전이-비전이를 발생시키는 주요소는 동사의 시간특성이다. 즉 동사가 지니는 의미론적인 경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것은 언어논리적인 것이었다.

- (21) a. Je veux voir un film avec Jeanne.  
 b. Mais, elle est sortie.

이 경우 동사 'sortir'가 경계를 갖는 것이어서 이 동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즉 문장의 주어인 'Jeanne'의 공간적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발화체 a.에 대한 적절한 응수로 이해된다.

그런데 코베트가 지적한 전이적 상황은 동사가 경계를 갖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발화상황에서는 동사가 한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전이상황이 발생한다.

- (22) Jeanne se repose dans sa chambre ; elle vient de se promener.  
 (23) a.. Tu vas te coucher si tôt?  
 b. J'ai passé la nuit en chemin de fer.

(22)에서 'vient de se promener'는 전이적인 동사가 아니다. 'vient de se promener'가 'se repose'를 유도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과정이 랑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는 전이적 상황을 함의(impliquer)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3)에서 'ai passé la nuit en chemin de fer' 역시 전이적 상황을 지칭하는 동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결과상태를 함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황이 개재된 수사부((component rhétorique)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수사부는 랑그가 다 포착할 수 없는 화자의 심리, 의도, 평가, 경험 등을 실어 전달하는 화용론적인 성격을 띤다. 언어는 산별적(discret)인 것이지만 인간의 경험은 경계가 모호한 연속적(continu)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런 주장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한정-비한정의 대립관계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자.

이 대립이 시제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면 보다 생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4) Une mouche maigre *tournait*, depuis un moment, dans l'autocar aux glaces pourtant relevées. Insolite, elle *allait* et *venait* sans bruit, d'un vol exténué. Janine la perdit de vue, puis le vit atterrir sur la main immobile de son mari. Il *faisait* froid. La mouche *frissonnait* à chaque rafale du vent sableux qui *crissait* contre les vitres. Dans la lumière le véhicule *roulait*, *tanguait*, *avançait* à peine, Janine regarda son mari...<sup>15</sup>

이 긴 예문에서 우리는 반과거와 단순과거의 가치를 각각 배경과 행위로 이해한다. 즉 후경과 전경의 두 장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과거가 무슨 이유로 후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앞서 빌메는 반과거의 시상기능으로 분할(*sécant*)을 들었다. 시간의 모습이 분할된 것이기에 여기에는 다른 동작이 끼어들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 분할상을 비한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비한정적인 까닭에 아직 어느 경계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변화된 상황을 지시하지 않는다. 화자의 시선은, 한정인 경우와는 달리,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다. 독자(혹은 청자)는 지루하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적인 행위를 독자는 예견하고 기대하게 된다. 독자의 관심은 순간적으로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과거에 의해 제시된다.

빌메가 분할과 총체로 명명하였던 시상을 비한정과 한정으로 대체하면 우리는 보다 많은 설명력을 갖는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한정과 비한정을 각기 상황의 변화와 상황의 지속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의 발화체를 보자.

(25) Je l'adore

(26) Je l'ai adoré

이 발화체의 의미는 명백하다. (26)은 'je ne l'adore plus'를 간접적으로 진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 'adorer'는 전형적인 상태동사이다. 이 상태동사가 시제인 복합과거와 쓰였을 때 언어논리적으로 확인가능한 결과는 없다. 그런데 복합과거의 시상을 한정시상으로 간주한다면 위의

15. A. Camus, *la femme adultère*, Weinrich(1973), p.111.에서 재인용함.

'je ne l'adore plus'는 가능한 함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26)은 두 개의 상황, 즉 과거와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달라진 상황을 지시하는 발화체로 기능한다.

이런 상황은 코베트의 전이-비전이 동사분류나, 빌메의 분할-총체시상 등의 대립에 의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발화체의 시상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문장의 시상을 고려한 까닭이다. 달리 말해 화자의 발화상황을 고려대상에 넣지 않았던 것이다.

## 5. 맺 음 말

시상의 기능을 문장이 아닌 발화체에서 밝혀보기 위하여 우리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우선 문법교과서에서 시상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나르의 저서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보나르는 동사의 시상과 시제가 결합하여 문장의 시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는 동사의 시상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 이어 고전으로 통하는 벤들러의 동사분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는 동사 자체의 시상도 동사구의 구성성분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빌메는 불어의 시상을 거의 완벽하게 체계화하고 있었다. 그는 문장의 시상을 의미시상, 문법시상, 어휘시상으로 분류하고 각 시상에 대한 하위시상을 세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상체계가 문장의 시상을 자세히 밝힐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시상이 무엇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는지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런 선행작업결과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수용하였다. 즉 동사와 시제를 개념의 단계에 속하는 요소로 보고 동사가 활용되는 과정을 한정작용단계로 고려하였던 것이다. 형식언어적으로는, 시제가 연산자의 역할을 함수이며 동사는 정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은 결국 상황에서 생산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나르의 한정-비한정, 코베트의 전이-비전이, 빌메의 분할-총체의 대립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 대안으로 우리는 시상을 한정-비한정의 대립관계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 대립은 동사의 시상뿐만이 아니라 시제의 시상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발화상황을 고려한 문장의 해석에도 유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 참고문헌

- Bonnard, Henri. 1982. *Code du français courant*. Magnard.
- Comrie, Bernard. 1976. *Aspec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 Ducrot, Oswald. 1979. "L'imparfait en français," *Linguistique Berichte* 60.
- Ducrot, Oswald. 1984. "Les lois de discours," *Le dire et le dit*. Minuit.
- Guillaume, Gustav. 1970. "Temps et verbe," *Théorie des aspects, des modes et des temps*. Paris: Champion.
- Guillaume, Gustav. 1973.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 Hoepelman, J. et C. Rohrer. 1978. "'Déjà' et 'encore' et les temps du passé du français," *La notion d'aspect*. Université de Metz.
- Holt, Jens. 1943. *Études d'aspect*. Universitetsforlaget I Aarhus.
- Martin, Robert. 1971. *Temps et Aspect*. Paris: Klincksieck.
- Martin, Robert. 1978. "'Déjà' et 'encore' : de la présupposition à l'aspect," *La notion d'aspect*. Université de Metz.
- Martin, Robert et F. Nef. 1981. "Temps linguistique et temps logique," *Langages* 64.
- Vendeler, Nenon. 1967. "Verbs and times,"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 Vet, Co Temps. 1980. "Aspects et adverbess de temps en français contemporain," *Essai de sémantique formelle*. Genève, Droz.
- Vet, Co Temps. 1981. "La notion de 'monde possible' et le système temporel et aspectuel du français," *Langages* 64.
- Weinrich, Herald. 1973. *Le temps*. Seuil.
- Wilmet, Marc. 1978. "Aspect grammatical, aspect sémantique, aspect lexical: un problème de limites," *La notion d'aspect*. Université de Metz.
- Wilmet, Marc. 1978. *Gustave Guillaume et son école linguistique*. Nathan.

원 유 상

원광대학교 불어불문과